

실버출판의 실태로 살펴본 ‘고령화 문제’

고령화에 따른 출판계의 변화와 대안

한 기 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고령화에 따른 실버출판의 가능성

올해 초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채용 확대시 1인당 연간 100만 원 세액 공제 ▶이공계 인력 채용 때 보조금 지급 등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런 정책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시장 원리와 기업 부담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오히려 인위적 정년 연장이 “기형적 인력구조와 청년실업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가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 12월 전체 실업자 수는 82만 명인데 청년실업자는 43만 명으로 절반이 넘는 정도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해소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고 ‘고령화 문제’를 방치해도 좋을 만큼 우리 사회가 여유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로 볼 때 앞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압축적 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마침 출판시장에서도 실버출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준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미치 앨봄, 세종서적)은 1997년에 출간된 후에 해마다 판매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2003년에도 여전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 밖에도 『나이들에 대하여』(박혜란, 웅진닷컴),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로저 로젠블라트, 나무생각), 『중년 이후』(소노 아야코, 리수), 『남자의 후반생』(모리야 히로시, 푸른숲), 『2막』(스테판 M. 폴란, 명진출판), 『남자의 인생 지도』(게일 쉬어, 황금가지) 등 화제작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노인 세대로 접어들게 되면 병들고 주머니가 빈 처지를 한탄만 하는 사람과 남은 생을 좀더 적극적으로 향유하려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한다. 당연히 후자 유형의 사람이 늘어나야만 더 성숙한 사회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실버출판물의 출간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도 후자 유형의 사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징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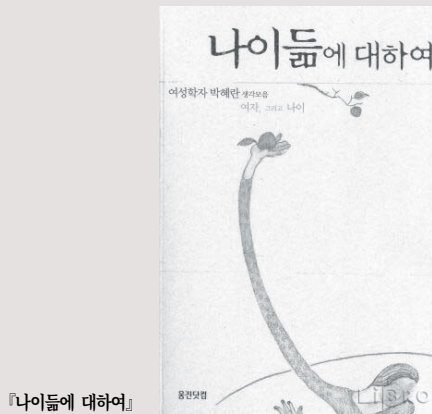
이들 책의 주 독자층은 6월 항쟁의 ‘성공’을 경험한 세대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된 이들의 정서는 앞뒤 세대와 크게 구별된다. 그들은 과거에 인문서 시대를 열었으며, 자식들에게 양질의 아동서를 경쟁적으로 읽혔다. 지난해만 해도 통하지 않던 탁넛한이나 달라이 라마의 책을 작년에 대대적으로 유행시켰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정보기술(IT)혁명으로 말미암아 화이트칼라형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벤처 열풍도 불었다. 인터넷은 그 어느 때보다 이들에게 무수한 ‘읽을 거리’를 내놓고 있으며, 5일제 근무 시대도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40대에 접어든 이들은 자기 삶을 더욱 긍정적인 스타일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나이듦에 대해서마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정신적 풍요와 역사적 배경을 다룬 여행서, 앞선 세대들의 고뇌에 찬 삶을 다룬 논픽션, 이론의 단계를 뛰어넘어 세대별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보여주는 환경관련서, 라이프 경영을 추구하는 처세서 등을 즐기고 있는 이들은 사회변화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넘친다.

일본을 통해 예측해보는 국내 실버출판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실버출판이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붐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는 신서시대와 문고시대를 만들어내면서 독서시대의 중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이제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5·60대를 넘어서서 70대로 일컬어질 정도가 되었다.

〈사라이〉나 〈이키이키〉 등 이들 세대로 한 잡지는 중요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일본의 베스트셀러는 대개가 노



『나이에 대하여』



『불량노인이 되자』

인독자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생론의 주요 테마는 ‘늙음’과 ‘죽음’이고 삶의 고단함을 치유하는 최고의 책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친 아버지’들이며, 10대용으로 만든 책이어야 노인도 읽고,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다. 일본 출판을 관통하는 주 독자층은 바로 단과세대인 것이다.

보통 우리 출판은 일본에 비해 10년 정도 뒤쳐져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으로 인해 그 간격이 크게 좁아지고 있어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실버출판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 실버출판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보는 것이 우리의 좌표를 가늠해보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찾는 일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199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출간된 실버출판물 598종의 내용을 분석해 키워드별로 정리했다. 그때 빈도수가 높았던 키워드들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수 - 치매, 식생활, 뇌내혁명

노인들의 최고 바람은 시공을 초월해 단연 건강·장수다. 이를 반영하듯 건강·장수 관련 서적이 꾸준히 간행되었는데 특히 1995년 이후에는 좀더 세분화되어 치매 예방법과 환자 이해, 노인의 성생활, 식생활을 통한 건강법, 뇌단련을 통한 두

뇌 단련법 등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도 세분화되었다. 특히 1996년 출간된 하루마야 시게오의 『뇌내혁명』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좋다, 될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플러스 발상’을 계속하면 뇌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 의욕이 고취되고 인내력과 창의력,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플러스 발상으로 두뇌를 단련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발상법이나 두뇌 단련에 관한 유사한 책들이 상당수 출간되었으며 ‘노인력’과 마찬가지로 ‘뇌내혁명’은 키워드로 등장했다.

(2) 노년의 남성과 여성 -

여성 : 아름다움을 찾는 자기 관리법까지,

남성 : 가정에서 제자리 찾기/새로운 일에 도전

남녀의 노후 생활에 관한 책은, 평균수명이 긴 탓인지 여성에 관한 것이 조금 더 많았다. 대체로 남편 없이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법, 깨끗하게 살아가는 법 등이 많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노년의 여성성에 주목해 2000년 이후에는 미용·패션 관련서도 출간되었다. 이런 경향은 ‘할머니는 미용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어하는 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Beautiful Aging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성의 노년은 주로 정년퇴직한 샐러리맨의 입장에서 다른 것이 많다. '사회 속의 인간'에서 '가정 속의 인간'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가정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언어'와 '가정적 언어'를 구별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정년 이후 새로운 삶을 찾는 비즈니스맨들의 사례를 통해 용기를 북돋우는 책들이 많았다.

(3) 불량노인(性)

일본에서 '불량노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것은 단연 『불량노인이 되자』의 저자 세키 간테이일 것이다. 여든 한 살의 조각가인 세키 간테이는 낮에는 창작 활동에 몰입하고 밤이 되면 술집 아가씨들과 어울려 농담을 주고받는다. 저자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불량노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회적 통념을 거부하는 '젊은 노인'의 역설적 표현이다. 저자가 불량노인이 되고자 함은 바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를 최고의 순간으로 보내자는 의미다. 노년에 대한 긍정적·적극적 개념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노년의 '성' 문제 역시 그렇다. 세키 간테이는 노년의 성은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갖고 닦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노년의 성과 건강에 대해 다룬 『성이야말로 자기하기 나름』, 발랄한 노년기를 담은 『에도식 삶의 친구들』 등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발랄하고 적극적인 노년의 모습을 담은 책들이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4) 노부부의 인생설계

자녀양육과 출가를 마치고 맞이하는 제2의 신혼, 원에 다시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노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일로 1990년대 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된 테마 중 하나다. 『부부가 원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방법』, 『예순살 멋진 부부, 문제 부부』, 『치열하게 살아온 만큼 정년후 부부가 즐기는 전원생활』, 『정년, 둘만의 여행 -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재발견』, 『50대 부부의 인생설계 - 인생은 마음과 돈의 이인삼각』 등 인생설계, 전원생활, 여행 등 다양한 테마로 접근했다.

(5) 재혼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 재혼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2년 1,438건이던 60세 이상 남자의 재혼건수가 1997년에는 1,535건으로 늘었고

2001년에는 2,343건으로 급증했다. 60세 이상 여자의 재혼건수도 643건에 달하고 있다. 노년재혼 비중이 커지면서 재혼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최근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노인의 재혼과 이성교제가 늘고 있다. 황혼기에 제2의 신혼을 꿈꾸며 새로운 반려자를 찾아 나서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당당함으로 재혼을 선택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향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관련서적도 여러 권 출간되었다. 관련서: 『둘이서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사랑 - 실버 세대의 선택』, 『오후의 반주자 - 중장년의 재혼에 대하여』, 『정년후 다시 젊어지는 생활법』

(6) 자립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2년 사회통계' (가족, 복지, 노동부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45.8%가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실제로 전체 부모의 46.3%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비중은 4년 전보다 4.7% 높아진 것이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듯, 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생애현역'과 함께 '노년의 자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년의 자립은 자녀로부터의 자립, 독신으로서의 자립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일단 자녀로부터 자립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자는 메시지의 『노후의 대명점 - 나이듦에 밀릴 것인가! 21세기 올바른 사고방식』을 비롯해 『대왕생까지 활동하는 책 -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고 일하기』, 『연금 월 21만엔으로 둘이 해외에서 살기』, 『속 죽기전까지 해야 할 것 - 믿을 것은 오직 자신뿐』 등 노후 경제적 자립에 대한 마음가짐과 힌트를 제시한 책들이 많다.

또한 독신으로 자립해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책도 상당수 출간되었다. 특히 정년 퇴직한 비즈니스맨의 경우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장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때다. 정년을 맞이한 남성이 사회로부터 그리고 아내로부터 독립해 진정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샐러리맨의 세컨드 라이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를 비롯해 생애 현역으로서 독

우리나라가 엄청난 압축적 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마침 출판시장에서도 실버출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준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미치 앨봄, 세종서적)은 1997년에 출간된 후에 해마다 판매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2003년에도 여전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 있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례를 담은 책이 상당히 많았다.

(7) 생애(평생) 현역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 사회는 노인이 되어도 원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생애 현역' 사회를 지향한다. 이것은 시대의 필연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 존재했던 연공서열에 의한 고용시스템이나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립 혹은 생애 현역이라는 어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정부 시책이나 기업에 고령화 대책을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생애 설계법에 대해 일러주는 『생애 현역을 관통하는 책 -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당신에게』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애 현역을 목표로 중년 이후 능력개발, 재취업 지원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록한 『신 살의 인간개발』, 생애 현역으로 살아가려면 뇌를 자극하고 기를 단련해야 한다는 『나이들을 모르고 사는 지혜』 등도 있다.

(8) 창업 및 전업

자립과 의존의 경계에 있는 정년 후,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 대해 다룬 책들이 많다. 조기 퇴직한 샐러리맨, 부부가 함께 청소방을 개업, 판사를 그만두고 술집을 개업한 사람 등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80가지 이야기를 모은 『인생을 즐긴다 - 신 살부터 골을 결정한다』를 비롯해 퇴직금과 연금을 털어 레스토랑을 차린 주인공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정년 후에는 마음 편한 '레스토랑'을 시작하자』 등 새로운 일에 도전한 사람들의 성공스토리 및 노하우가 담긴 책들이 상당수 출간되었다. 특히 『정년 후에는 마음 편한 '레스토랑'을 시작하자』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동시에 장애인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낸 주인공의 성공 스토리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9) 평생학습 / 지적 호기심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노후 복지 및 노후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래의 '지식 사회'와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평생학습 개념이 강

조되고 있다. 특히 공부는 건강과 장수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나이 들어 공부해도 얼마든지 경쟁해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신 여덟부터 ‘아는’ 즐거움 - 다시 한번 인생을 깔고 닦기 위해』, 『중년 이후 지적으로 사는 법』 등 정년 후 두뇌를 활성화하며 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상당수 출간되어 노후 지적 호기심에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다.

(10) 동아리 활동 / 취미활동(춤, 등산)의 구체화

고령화된 사회에서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즐거운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각종 동아리 소개 책자도 상당수 눈에 띈다.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지식 사회에서 동아리 활동은 노인의 여가 선용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시니어 시대를 즐기는 동아리 활동 100』에서는 도쿄 근교의 동아리 베스트 100을 소개했고, 『활력있는 시니어 라이프』에서는 전국의 독특한 동아리를 소개하며 정년 후에도 보람을 찾고 활력있게 생활하는 요령을 알려준다.

1990년대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지역별 동아리 소개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즐거움에 대해 설명했다면 1990년 후반, 2000년 이후에는 좀더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략적 개념이나 가이드 차원이 아니라 좀더 세부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많은 포크댄스 중 고령자들이 즐길 수 있는 춤곡만 선별해 소개한 『고령자를 위한 쉬운 포크댄스』, 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백명산(百名山)의 사람들』 등 테마별로 분화되어 구체적인 취미활동을 돕는 방향으로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자원활동

돈과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소극적인 노후에서 이제는 봉사활동, 평생학습, 노후의 사랑 등 적극적인 Beautiful Aging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활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인 봉사활동으로서의 자원활동으로 『노인력을 기른다 - 실버 자원활동입문』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발전도상국 등에 대한 자원활동이다. 비즈니스맨으로

서의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기술이전 협력 활동에 주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기서 시작해도 좋아 - 실버 해외 자원활동』 등 노후, 해외에서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즈니스맨의 모습을 담은 사례집도 여러권 출간되었다. 어느 쪽이든 모두 생애 현역으로서 사회적·공적 활동을 하자는 개념이다.

(12) 전원생활

정년 이후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이것은 노년을 맞은 사람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로 노년의 자립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년을 위해 부부가 전원생활을 한다든지 해외로의 이주 또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등 제2의 인생을 어디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은 사람들의 50가지 이야기를 담은 『삶과 죽음의 교차로 - 정년이 보인다』를 비롯해 30쌍의 부부가 즐기는 풍요로운 노후 『치열하게 살아온 만큼 정년 후 부부가 즐기는 전원생활』, 『정년 부부 전원생활의 즐거움』 등 노후 전원생활의 노하우를 제시하는 책이 상당수 눈에 띈다.

(13) 기타 / 재테크, 인간관계 등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대체로 『읽으면 용기가 나는 노년사례』,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한 방법』, 『자기 계발 시리즈』 등 개략적으로 접근한 책들이 많았던 것과 비교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 일상에 대한 실용 정보를 담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건강관리, 의식주, 경제(재테크), 인간관계, 법률·복지 서비스 등 노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총망라해 종합적으로 다룬 종합 실용백과 『나이듦과 삶의 실용백과』가 출간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구체적 일상생활 지침이나 습관에 대해 일러주는 책들이 출간되었다. 또한 『노년을 즐겁게 사는 방법 - 나의 노년준비』 등 에세이에서도 노인이 직면한 문제, 즉 인간관계나 재테크 관련정보들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노후에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상세히 다룬 책들은 꾸준히 출간되었다. 또한 은거, 죽음을 준비하는 유언에 관한 책들도 상당수 출간되었다.

‘고령화 문제’ 출판계와 정부의 대책 마련 시급

인생을 80세라고 볼 때 60세에 정년을 맞이하면 20년 가까운 시간이 남는다. 그러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60부터 시작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 시절 회사에 근무할 때 40세를 정년으로 생각하고 남은 40년에 대해 마흔 살 때부터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서적이 상당수 눈에 띈다. 2001년 국내에서 출간된 『불량 노인이 되자』(나무생각)는 노후에도 성과 열정을 즐기자는 제안을 담아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책은 애초에 4·50대 이상을 타겟으로 기획되었으나 실제 주 독자층은 30대였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집계에 따르면 이 책을 구매한 독자는 30대가 66.6%, 40대가 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나무생각)도 2·30대의 독자가 판매량의 77.5%를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버 출판물은 다른 실버산업과 달리 실제 소비층이 노년이 아니다. 노년을 앞두고 있는 보다 젊은 세대들이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40대는 노년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인생 후반을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할 때다.

그런 만큼 실버출판물을 기획하는 데 40대는 다종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40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 - 연령별 자기계발 시리즈』(일본능력협회), 『마흔부터 현명한 삶』(하트 출판), 『마흔부터의 인생 설계 가이드』, 『40세부터의 새로운 노년학』(노동旬報社) 등 고령화 시대에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것들에

대해 다른 정보서적들이 창업, 재테크, 건강관리 등 다방면에 걸쳐 출간되었다.

5·60대는 본격적으로 사회 현역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는 시기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다룬 책들은 대체로 이 세대를 겨냥해 집중적으로 출간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버 출판물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실제 소비층은 대부분 40대 이하다. 따라서 국내의 실버출판물은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읽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그 연령은 급속하게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일본에서 10년간 출간된 서적의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이런 경향은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1994년까지는 4~60대에 머물러 있던 것이 19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00세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평균 수명이 점차 연장되면서 이제는 5·60대가 직면하는 노년의 삶뿐만 아니라 7·80대 인생 현역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장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음을 나타낸다.

이제 출판인들이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책을 펴내주고 정부가 ‘고령 사회’의 대책을 시급히 세우는 것은 노년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미래의 비전을 갖고 평상시에 열심히 일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상 뒤로 미뤄도 될 만큼 한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서둘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출
판